

2022. 12. 6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

학예연구부장	박현욱	724-0138
교육대외협력과장	이진현	724-0190
담 당 자	이재경	724-0194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6쪽

누리 집 [museum.seoul.go.kr](http://museum.seoul.go.kr)

### 유르타(Yurt, 카자흐스탄 이동식 주택)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서울역사박물관, 서울-알마티 교류전 <대초원의 진주> 개막

- 한국-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서 개최(무료 관람)
- 검독수리 사냥도구, 유르타(yurt) 모형, 은세공품 등 카자흐스탄 유목 문화를 보여 주는 유물 100여 점 전시('22. 12. 6. ~ '23. 2. 12.)
- '중앙아시아의 거인' 카자흐스탄과 최대 도시 알마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

- 서울역사박물관(관장 김용석)은 알마티박물관(관장 라자트 사간디코바 Lyazzat Sagindikova)과 공동으로 <대초원의 진주 The Pear of the Great Steppe> 교류전을 12월 6일(화)부터 내년 2월 12일(일)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.
- 한국-카자흐스탄 외교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이번 전시는 카자흐스탄과 옛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알마티(Almaty)시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한다.(외교 수립일: 1992.1.28.)
- 카자흐스탄(Kazakhstan)은 중앙 유라시아의 광대한 초원을 품은 나라로 '중앙아시아의 거인'이라 불린다. 지리적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 문명을 이어주는 교차로 역할을 하며 유라시아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.

- 카자흐어로 ‘사과의 아버지’라는 뜻을 지닌 알마티(Almaty)는 1997년 아스타나(Astana)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였다. 여전히 과학, 문화, 산업, 금융의 중심지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.
- 카자흐스탄 대표 도시역사박물관인 알마티박물관(Museum of Almaty)이 기획한 <대초원의 진주> 로비전시는 알마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족지학적 유물 100여 점을 서울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. 이번 전시를 통해 대초원을 터전으로 유목 생활을 하던 튀르크 민족의 전통을 잇는 카자흐스탄의 삶을 엿볼 수 있다.
-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. 1) 유목 문명 : 일상생활, 사냥 기술, 보석 세공 기술, 전통 악기 2) 알마티의 어제와 오늘
  - [일상생활] 유목 문명의 상징인 유르트(yurt, 이동식 조립 주택)에서 사용하는 카페트와 그릇, 보관함과 같은 생활용품과 옷을 전시한다. 유르트의 축소 모형을 통해 유목 생활의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확인할 수 있다.
  - [사냥 기술] 카자흐스탄의 오랜 전통인 검독수리(Berkut, 베르쿠트) 사냥과 유목 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자 주요 양식(糧食)이었던 말과 관련된 유물을 소개한다.
  - [보석 세공 기술] 정밀하게 세공된 여성용 은제 장신구와 알마티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디르함(Dirham) 동전을 전시한다. 금속 광석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은 발달된 금속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속 공예품을 제작하였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여성 머리 장식인 ‘샤시바우(Shashbau)’와 ‘솔피(Sholpy)’, 가슴 꾸미개 ‘오니르지예크(Onirzhiek)’를 비롯하여 귀걸이, 팔찌, 반지 등 여성 장신구를 볼 수 있다.
  - [대초원의 음악] 유목민의 고락을 함께한 전통 악기를 소개한다. 카자흐스탄의 국민 시인이자 철학자인 아바이 쿠난바예프(Abai Kunabaev)의 돔브라(Dombra)와 제티젠(Zhetygen), 킬코비즈(Kylkobyz)와 같은 다양한 전통 악기를 접할 수 있다.
  - 마지막으로 [알마티의 어제와 오늘] 부분에서는 알마티의 랜드마크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수천 가지 색으로 빛나는 도시, 알마티를 만날 수 있다.

□ 전시를 함께 준비한 알마티박물관은 알마티시립박물관연합(Association of Museums of Almaty : 2014년 설립, 총 8개 박물관 운영)에 소속된 도시역사박물관으로 고아원 건물을 활용하여 2002년 개관한 시립박물관이다. 알마티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 주는 민족지학 유물, 화폐, 사진, 문서, 회화 등 약 4만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.

□ 전시 개막에 앞서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“중앙 유라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이 지니는 의미는 특별합니다. 대초원에서 탄생 된 진주같이 아름다운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요즘, 조금은 낯선 카자흐스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개막식은 12월 6일(화) 오후 3시,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서 개최하며, 마이리바예프 가니 아이다로비치(Mailybaev Gani Aidarovich) 알마티시 문화본부장 등 카자흐스탄 대표단과 바캇 듀센바예프(Bakyt Dyussenbayev)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, 아이수루(Ai Su Luu) 서울특별시의원이 참석하여 전시의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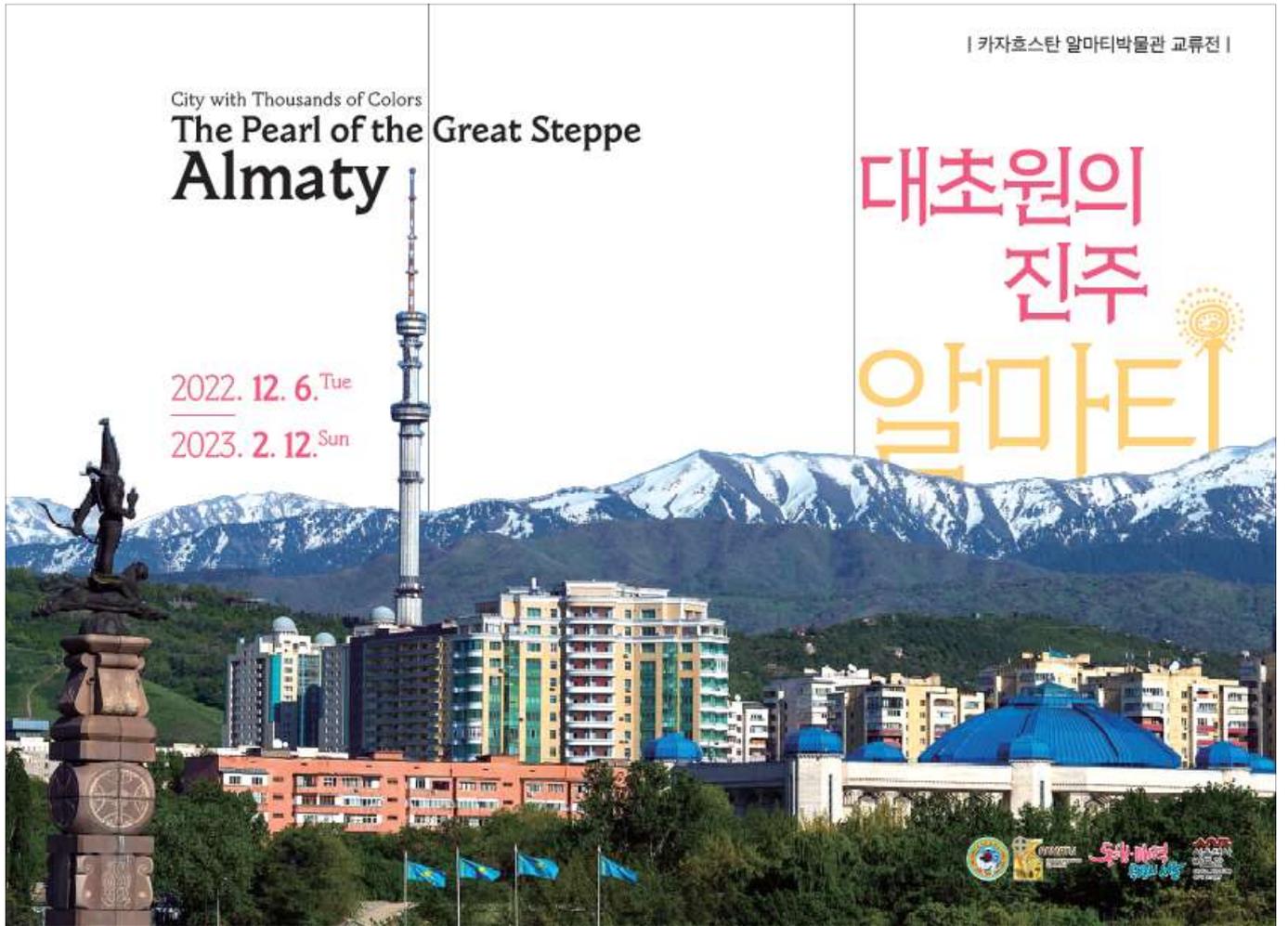
□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,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.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이다.

○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([museum.seoul.go.kr](http://museum.seoul.g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(관람문의: 02-724-0274)

□ 불 임 1. 전시 홍보물

2. 주요 유물 사진

[붙임 1] 전시 홍보물



[붙임 2] 주요 유물 사진



말 안장



전통 의상



카페트



가슴 꾸미개와 귀걸이



전통악기 '돔브라'



디르함(Dirham) 은제 동전